

## 메시지 4

#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성경: 요 20:22, 6:33, 57, 고전 10:3-4, 계 2:7, 17, 3:20

### I.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 20:22.

A.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또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이처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완결되신 영으로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 1:29, 20:22.

1.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정되고, 14장 16절과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과 8절, 13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2.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사실 수 있고 제자들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이다 — 요 20:22, 14:19-20, 15:4-5.

3.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제자들 안에 넣어 주셨다.

4.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것은 이 영이 그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영은 아들의 숨이다.

B.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다 — 고후 3:6, 17, 요 20:22.

1.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들이칠 수 있는 거룩한 숨이 되셨다 — 요 1:29, 20:22.

2.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과 어린양과 나무와 숨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은 표현을 위해 있고, 어린양은 구속을 위해 있으며, 나무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있고, 숨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 있다 — 요 1:1, 29, 10:10하, 14:19, 15:1.

C. 숨이신 완결되신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오직 숨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 갈 3:2-3, 14, 빌 1:19, 계 2:7.

### II.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영적인 음료,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 — 고전 10:3-4.

A.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영적인 음료는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킨다. 이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물은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음료이신 그 영을 예표한다 — 출 17:6, 요 7:37-39, 고전 12:13.

B. 영적인 음료인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이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 — 고전 10:4, 요 14:20, 고후 1:9.

- C.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때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 이것은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주님께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조성 성분이 되시기 때문이다 — 고전 10:4, 골 3:4, 10-11.

### III.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다 — 딤후전 1:4, 요 6:35, 41, 57, 창 1:26.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요 6:33.
- B.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고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조성을 바꾸시는 것이다 — 출 16:14-15, 요 6:27, 32, 35.
- C. 요한복음 6장은 우리의 떡이신 그리스도, 곧 하늘에 속한 떡, 생명의 떡, 살아 있는 떡, 참떡,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 요 6:32-33, 35, 41, 48, 50-51.
- D.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자 생명의 떡이자 살아 있는 떡이신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기 원하신다 — 요 6:33, 35, 51.
1. 생명의 떡은 음식의 형태로 된 생명 공급이다 — 요 6:35.
  2.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 즉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 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즉 살아 있음을 가리킨다 — 요 6:35, 51.
- E.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문제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 엡 3:17상, 요 6:57.
1. 성경에 있는 ‘영적 식사’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의 의도가 먹는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 요 6:57, 고전 10:3, 계 2:7, 22:14.
  2. 먹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접촉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조성이 된다 — 창 2:16-17.
  3.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요 6:56-57.
  4. 먹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하는 길이다 — 창 1:26, 2:9, 요 6:51상, 53-57.
  5.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한 음식은 사실상 우리가 된다. 이것은 연합의 문제이다 — 고전 10:17.
  6.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할 때 발생하는 일로 예시된다 — 요 6:57.
  7. 우리는 우리가 먹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 F.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음식 공급이신 주님을 합당하게 먹는 데로 회복되었다. 그들은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이실 뿐 아니라 풍성으로 가득한 잔치이신 그분을 먹는다 — 계 2:7, 17, 3:20.